

# 우리나라의 대표적 거주유형에 대한 생각

Thoughts on Korea's representative types of residence

글. 강재원  
Kang, Jaewon  
곧 건축사사무소(주)

요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 돌아오는 질문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코로나로 사업에 타격이 많으시죠?”이고, 다른 하나는 “인테리어 붐이던데 돈 많이 버시죠?”이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할 뿐 시공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내디자인 또한 설계 및 감리는 하고 있다고 버튼 눌린 기계처럼 대답하고 나면 대화는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

## 코로나로 집콕족 ‘집꾸미기’ 열풍... 주거 공간 관심이 ‘인테리어로’ 귀결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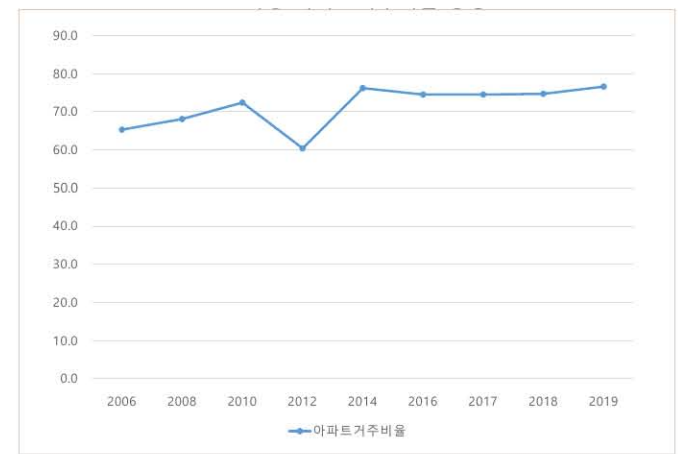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패턴은 ‘스테이 앳 홈(stay at home)’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데, 코로나 덕을 본 회사 중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홈 디포(Home Depot)’이다. 세계에서 가장 크게 건축자재와 주택 개보수 관련 디아이와이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로 올해 들어 시가총액이 315억 달러(약 37조 원) 늘었다고 한다. 오프라인 점포 영업을 하는 유통회사가 코로나19 시국에 이 정도 성장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재택근무, 자가격리로 주로 외부에서 보내는 일과시간 외 잠만 자는 공간이었던 거주공간에 대한 인식은 변하고 있다.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는 ‘마리에곤도’나 ‘신박한 정리’와 같은 쇼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제한된 생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30평대 아파트로 지칭되는 방 세 개짜리 주택은 ‘넓지 않은’이 아닌 ‘좁은’ 공간이 되었

다. 거주자들의 “어떻게 하면 좁은 집에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인테리어’로 귀결된 듯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주택유형별 거주 비율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은 50%를 넘어섰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의 지역별 소득계층별 주택유형에 따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저소득층은 29.1%, 중소득층 56.2%, 고소득층 76.6%로 고소득자일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까다로워진 대출 여건들을 고려하였을 때 이 비율은 점차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들의 대다수가 고소득층인 것을 감안하면 아파트 인테리어는 건축사사무소와 무관하지 않다.

<고소득층 아파트 거주비율 동향> 자료=통계청



<2019년 소득계층별 주택유형(단위 : %)> 자료=통계청

| 소득구분 |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주택이외의 거처 | 계   |
|------|------|------|------|-------|-------------|----------|-----|
| 전체   | 32.1 | 50.1 | 2.2  | 9.4   | 1.6         | 4.6      | 100 |
| 저소득층 | 50.4 | 29.1 | 2.3  | 8.9   | 2.2         | 7.1      | 100 |
| 중소득층 | 25.0 | 56.2 | 2.4  | 11.2  | 1.4         | 3.8      | 100 |
| 고소득층 | 13.1 | 76.6 | 1.4  | 6.2   | 1.0         | 1.6      | 100 |

선호하는 공간의 면적과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용적률과 경제성의 논리로 최근 공급된 주택들은 절대적인 면적이 작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좁은 집을 아무리 가꿔도 넓은 집보다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답답함은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되었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고소득자의 소득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통계청,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2020년) 넓은 면적의 아파트는 수요-공급의 원리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방으로 구현된 아파트의 형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에게 개방된 외부공간이 마스크 없이는 머무를 수 없는 공간으로 변모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에 대한 기호가 생겨나고 있다. 땀 뚫린 옥상정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의자 하나라도 놓을 수 있는, 야외에 개방된 발코니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 건축의 목표란...‘공간, 비어있는 사이, 생활하며 사용하는 곳을 디자인 하는 것’임을 상기해야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모일 때나 건축사가 할 일이지, 다른 건 건축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건축과 실내 디자인이 별개의 영역인가 아닌가를 따진다면 실내디자인이라는 분야는 건축이라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에 포함된 영역이고, 실내디자인만 한다고 하더라도 구조 변경 등의 이슈가 있으면 공인된 건축사의 확인이 필수이므로 건축사는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고를 키워서 아름답고 편리한 실내디자인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인테리어라고 통칭하는 실내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건물의 사업성은 다른 문제로 차치한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 고쳐서 다시 쓰는 것이 이롭다. 전 세계적 재난 위기로 얼어붙은 투자 심리와 각종 규제 및 법규로 새로운 건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제한된 땅과 제한된 자원이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조각 같은 건축물을 새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의 공간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건축사사무소의 업태는 서비스 건축주의 요구 사항과 기능 및 적법성의 접점을 찾아 최적의 안을 제안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건축주의 요구 사항은 그가 경험해 온 것들과 현재 영위하고 있는 것에 기반하여 형성되므로 건축사로서 건축주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공간, 비어있는 사이, 생활하며 사용하는 곳을 디자인하는 것이 건축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강재원 곧 건축사사무소(주)-건축사  
홍익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7년 실무경험 뒤 '곧 건축사사무소(주)'를 개소했다. 기획과 설계, 시공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건축의 전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과정이 즐겁게"를 표어로 삼고있다.

01@beforelong.co.kr